

대형견과 비행기 여행...송 의원이 바꾼 변화

대형견의 비행기 탑승 제한 철폐 한국애견협회 고문 활동도 활발 반려동물보험·테마형 주택 추진

#1 서울에 사는 A씨(45)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 하지만 항공사 내부 규정 때문에 반려견을 지인에게 맡기고 혼자 여행을 떠나야 했다. 결국 반려견과 올레길을 걷고 싶다는 A씨의 꿈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2 B씨(32)는 국제애견대회(도그쇼)에 참가 신청을 했다. 자신의 반려견을 도그쇼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항공사에서 '대형견은 탑승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B씨는 도그쇼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을 접어만 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위 두 사례와 같은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었다. 대형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비행기 위탁 수하물 무게 제한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2kg이 넘는 대형견들을 무게 제한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했다. 하지만 국내에도 해외처럼 대형견과 함께 하는 반려인이 많아지자 이 같은 탑승 제한을 바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애견협회 고문인 송영길 국회의



반려동물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송영길 국회의원이 자신의 반려견 시시와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애견협회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

사진출처 | 송영길 의원 페이스북

원(국회의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유럽과 미주, 일본 항공사들이 반려견에 대해 수하물 무게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송 의원은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에 무게 제한 적용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양 항공사가 이를 수용했다. 이 조치로 반려견 수하물 무게 제한이 2017년 3월 2일부터 사

라지며 32kg이 넘는 대형견도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철 한국애견협회는 반려동물 무게 제한이 사라진 후 "송영길 의원이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 발전과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려인들의 오랜 숙원을 푼 송영길 의원은 반려동물 사랑이 각별하다. 송 의원은 한국애견협회 고문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과 펫산업' 특강 및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반려동물 업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송 의원은 특강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반려동물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려동물이 더욱 중요하면서 반려동물 통해 우울증 개선, 사회성 발달, 면역증가, 혈압 완화, 건강 증진 등이 이뤄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반려동물 보험 전파, 선진형 반려동물 장례식장 마련, 공장식 축산 해결 등이 필요하다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는 테마형 주택인 '누구나 집과 반려동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에 반려인들은 송 의원을 주목하고 있다.

김효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생수 프라나.

반려동물용 생수 '프라나' 무더위 산책 필수 아이템

물 분자가 작아 목넘김에 좋고 흡수 빨라

반려동물을 위한 프리미엄 생수 '프라나'를 제조하고 있는 동우크리스탈이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는 산책족을 위해 '프라나 생수 원 플러스 원(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라나 생수는 털로 뒤덮여 있는 반려동물이 뜨거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수분 공급이 가능해 반려동물 산책 필수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다.

동우크리스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은 20개입 제품에 한해 진행된다. 배송비만 추가하면 20개입 1박스 제품 가격에 2박스, 총 40병을 구입할 수 있다. 생소할 수 있는 반려동물 생수를 가성비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반려동물을 위한 프리미엄 생수 '프라나'는 특허받은 LST공법으로 신선도를 유지시킬 수 있어 생수 안의 각종 미네랄 등 좋은 성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알칼리 성질의 물을 통해 노폐물 배출을 원활히 해주며 배변 및 모질 냄새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동규 동우크리스탈 대표는 "물을 마시다 사레가 걸려 객객거리는 반려동물이 많은데 프라나는 일반 물보다 분자 구조가 작아 부드럽게 물을 마실 수 있다"면서 "물 분자가 작은 만큼 흡수력이 빨라 일반 간식으로 먹기 힘든 미네랄 섭취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나 생수 제조 기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동우크리스탈은 2016년 미국 알라바마에 기술 제휴 계약을 맺고, 기술 이전을 했다. '기술 한류'라고 불릴 정도로 동우크리스탈 프라나는 널리 인정받고 있다.

박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지자체 부담 완화 vs 반려동물 유기 증가...보유세 찬반 '팽팽'

정부, 2022년 보유세 도입 검토 밝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으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 설치 운영비와 동물 복지에 지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여론의 반향이

졌다. 거센 찬반 논란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인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일단 반대 목소리가 컸다. 세금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주된 이유지만, 무엇보다도 보유세 도입과 동시에 반려동물이 버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게 버려진 반려동물은 다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입양을 꺼리게 되면서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 반려동물 전문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시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이 유기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반박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측은 책임감을 강조한다. 앞뒤 따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싫증이 나서 반려동물을 버리는 무책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유세 도입으로 갈수록 커지는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물복지 관련 정부 예산은 지난해 135억 원에 달했고,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도 2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박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반려동물 보유세는 악일까 독일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노믹스의 포용국가론
[노믹스의 포용국가론]
독자출판 978-10-2020-0115-678
이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론을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가장 먼저 만나세요

성경 기부경제학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홍익일자리 추진합니다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냐?**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야!
씩씩 때로 씩씩 좀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야
이생망, 헬조선, 흡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 인류, 반려동물까지 선착순 자동부자가 되는 우분투의 신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인류의구세주
 21세기 제2의 석유
 자본공유APP, K-비즈, K-플랫폼
 선착순 자동릴레이기부 플랫폼

문의처
세계교회 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종교재단' 등록!!!
 ● 고문단 최성규 목사 / 임신영 목사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익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세계교회 대혁신 투자 총괄전도사 **윤호영** 담당
 ● 서울 윤호영 010-2248-0815 / 황비 010-5647-5428 / 백민호 010-6462-6712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주자 010-9339-8649 / 김광수 010-3207-8291 / 김영배 010-8290-8801
 강영석 010-3274-5289 / 김신우 010-2209-1142 / 이승자 010-9725-2789 / 최희남 010-5661-4167 ● 부산 김광주 010-9852-6452 / 이재영 010-7135-2369 / 백성석 010-7309-1000
 민영숙 010-5118-5263 / 김한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주영환 010-4741-7008 / 조희교 010-7374-4111 / 류영순 010-6650-7567
 ● 대전 김찬구 010-8029-0059 / 송희경 010-7712-2202 / 김용환 010-3742-5998 / 전달만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이주환 010-4489-9789 / 박병두 010-8259-9960
 김신호 010-6543-3126 ● 울산 지영민 010-8003-5323 / 최택수 010-4830-1810 ● 창원 최정희 010-8231-0776 / 장인태 010-7586-7985 / 이철민 010-3572-4616 ● 전남 김혜덕 010-6258-3510
 오영숙 010-8804-3424 ● 인천 박은표 010-3227-0993 / 서동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천 허현석 010-4707-2659 / 한선희 010-5177-9479
 ● 여주 정근영 010-8513-3833 ● 영인 김기영 010-6285-7653 ● 중국 송동욱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하와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대표번호
1644-6733